

장성 농어촌 뉴타운 전국 첫 입주

200세대 입주계약 완료 5월까지 준공

80% 이상 다른 시도민 인구유입 효과



김양수 장성군수(왼쪽)가 장성 드림빌 첫 입주자인 박동신씨에게 꽃바구니를 건네며 축하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새로운 농촌형 주거단지로 각광받고 있는 농어촌 뉴타운 첫 입주가 장성에서 이뤄졌다.

전남도는 장성군 삼서면 유령리에 조성 중인 농어촌 뉴타운 '장성 드림빌'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입주가 시작됐다고 16일 밝혔다.

장성 드림빌은 총사업비 437억원을 투입해 주택 200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4월 전 세대 입주계약이 완료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빠른 진척도를 보였다. 필수 기반시설과 주택 건설 또한 대부분 마무리 단계로 오는 5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장성 드림빌은 강원도에서 귀농한 박동신(48)씨 부부가 지난 15일 첫 입주를 시작한 이후 이달 들어 20세대, 23세대, 4월 43세대, 5월 114세대 등 200세대 700여명이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이다.

입주 예정 세대들의 출신지는 광주 108세대,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39세대 등으로 다른 시도민이 80%(158세대)를 차지하고 있어 인구 유입효

과도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근백 전남도 행복마을과장은 "장성 뉴타운은 전국 5개 시법지구中最 빨리 진행돼 다른 지역의 모델이 되고 있다"며 "5월까지 입주가 완료되면 570명의 다른 시도민이 전입하게 돼 침체된 농촌사회를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성 유령리와 함께 추진되고 있는 화순 능주면 삼정지구 뉴타운 조성 사업은 분양 대상인 한옥 50세대를 포함해 200세대 규모에 490억원을 투입해 오는 12월 입주 목표로 추진중이다. 지금까지 한옥 28세대 등 153세대가 입주계약을 완료했다.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화순군 분양사무실(061-379-3667)에서 선착순으로 접수받고 있다.

한편 농어촌 뉴타운 조성 사업은 2009년 전국 5개 지구를 시범사업지구로 선정해 올 연말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해 오고 있다. 사업지구는 장성·화순 각 200세대, 고창·장수·단양 각 100세대다. /장필수기자 bungy@



영암군 무인헬기 동원 AI 방역

철새도래지 영암호 주변 농경지 항공방제